

# 로컬 자원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

### 경제일자리재단, 우수상권 육성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상인·주민 참여해 동명커피산책 등 특화 콘텐츠 운영

우수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23일 "지난 20일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에서 '우수상권 집중육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우수상권 집중육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며 동명

동의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활성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일자리재단은 지난 4월 동구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광주형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한 대표상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이후 동명동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로컬브랜딩을 구축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

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먼저 로컬브랜드 구축을 위해 대표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고 동명동 대표 상가 10개소에 현판을 설치해 동명동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또한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 사람, 이야기, 축제가 어우러지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10월 열린 '동명커피산책' 행사는 동명동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약 3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앞서 무신사의 자회사

인 솔드아웃과 협업해 제작한 '커피산책' 한정판 키링은 큰 인기를 얻으며 지역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로컬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자원도 새롭게 발굴되며 지역의 매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커피북는집'의 디카페인 커피, '노바 언더리'의 동명동 헤리티지 매거진, '오마이어스'의 친환경 캠페인, '플로리다'의 푸어링 푸딩, '오로지스튜디오'의 동명동 커피산책 쇼츠 등은 지역의 개성 과스토리를 담고 있다. 김현성 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지역 관리 회



사 설립을 통해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과 생활 인구 유입을 증가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성과공유회는 동명동 골목 상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인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상권 집중육성 사업은 상권

조성과 주민, 임대인,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다. 동명동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마스터플랜 수립 ▲로컬 브랜드 구축 ▲커피산책 ▲로컬 아카이빙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정은솔기자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현재 수준 동결된다

###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다음 달 1일부터 3월말까지 적용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은 23일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이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으나 누적적자 등 재무상황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한전의 재정 적자 상황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 등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재만 기자

## '고금리 시대' 中 小 企 부담 가중 47.2% "자금사정 악화됐다"

### 전년비 부정 응답 15.5p ↑ ...금융부담 해소 정책 절실

올해 매출 감소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47.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됐다'(31.7%)는 응답 대비 15.5%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반면, '호전됐다'는 기업은 6.6%에 불과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악화됐다'는 기업 비중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판매부진(59.3%)'이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41.9%)', '인건비 상승(26.3%)'이 뒤를 이었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46.9%)'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은행 대출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대출금리 인하(7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38.6%)'를 가장 많이 꼽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변동은 묻는 질문에는 '변동없음(49.4%)'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은행 이용 여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 차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3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의 '악화(17.7%)' 응답보다 14.9%p 증가한 것이다. 심사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은 24.6%로 지난해 19.7%에 비해 4.9%p 높아졌다. 추문갑 중소기업정책본부장은 "올해 매출 감소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했다"며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맞게 은행도 대출금리를 인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 광주상의 "지역 자동차 산업 인력난 해소·복지 격차 완화"

### '車 상생협약 확산 사업 성과 간담회'

자동차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이 지역 자동차 산업 인력난 해소와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자동차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호기공, ㈜신

성테크, ㈜효광 등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둔 현대자동차 기아 협력업체 임직원 등 10여명이 참석, 사업 참여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도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동차 산업의 인력

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우리 지역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 82개사가 참여,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임재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인증캠페인

##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 남광주시장

남광주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주시장은 1930년 '신광주역'의 개통과 함께 별교, 보성 등에서 직접 잡고 기른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열차에 싣고 파란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산물, 야채, 국밥골목 등이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장이 가진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동구    문의 : 062)650-2099